

장애인의 사회활동실태와 개선방안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and Related Policy Issues

1. 들어가며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며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 이념하에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장애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그의 물리적·비물리적 장애¹⁾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金成禮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물리적 장애에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건축물 등의 이용장애가, 비물리적 장애에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 편견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됨.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5년에 이어 실시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우리 나라 재가장애인들의 사회활동실태²⁾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구 현황

우리 나라의 장애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은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모두 합하여 1985년에 92만여 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96만여 명, 1995년에는 105만여 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145만여 명(인구 100명당 장애출현율 3.09%)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는 199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³⁾에 의해 장애범주가 기존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개 범주에서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새로이 추가되어 10개의 범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장애발생의 특징은 먼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현재까지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의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 81.2%, 1995년에는 88.1%, 그리고 2000년에는 89.4%로 전체 장애인의 90%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85년에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28.8%였는데, 1995년에는 44%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39.6%로 1995년도 조사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며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본고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외출실태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를 기초로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함.

표 1. 장애인구수 및 후천적 장애비율

(단위: 명, %)

	1985	1990	1995	2000
장애인구수	915,000	956,000	1,053,000	1,449,500
후천적 장애인 비율	81.2	85.2	88.1	89.4
노령장애인 비율(60세 이상)	28.8	34.6	44.0	3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고령화사회에 따른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3. 사회활동실태

1) 외출실태

장애인의 사회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난 1년간의 외출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외출을 하는 경우 외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76.8%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혼자서 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유형별로는 특히, 청각장애(91.9%), 지체장애(88.2%), 언어장애(86.1%), 신장장애(85.2%)의 경우에 혼자서 외출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50% 이상이 혼자서 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장애인들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외출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주 1~3회', '월 1~3회', '1년에 10회 이내'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5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1~3회'(19.6%), '월 1~3회'(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중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도 6.4%나 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은 비교적 외출빈도가 높은 장애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혼자 외출여부

(단위: %, 명)

	혼자 외출여부		계(N)
	예	아니오	
지체장애	88.2	11.8	100.0(1,798)
뇌병변장애	45.6	54.4	100.0(622)
시각장애	78.3	21.7	100.0(512)
청각장애	91.9	8.1	100.0(453)
언어장애	86.1	13.9	100.0(86)
정신지체	63.7	36.3	100.0(278)
발달(자폐)	33.6	66.4	100.0(30)
정신장애	58.3	41.7	100.0(155)
신장장애	85.2	14.8	100.0(67)
심장장애	74.1	25.9	100.0(122)
전 체	76.8	23.2	100.0(4,12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표 3. 외출빈도

(단위: %, 명)

	외출빈도					계(N)
	거의 매일	주1~3회	월 1~3회	연 10회 이내	외출 많음	
지체장애	66.6	17.7	8.8	3.4	3.6	100.0(1,798)
뇌병변장애	35.8	19.5	11.6	14.2	18.9	100.0(622)
시각장애	61.3	19.0	13.0	3.6	3.1	100.0(512)
청각장애	72.5	18.6	4.7	1.9	2.3	100.0(453)
언어장애	69.9	23.6	3.2	0.7	2.6	100.0(86)
정신지체	67.6	17.1	4.7	5.8	4.8	100.0(278)
발달(자폐)	71.9	10.5	3.3	-	14.3	100.0(30)
정신장애	33.1	26.4	13.5	9.8	17.2	100.0(154)
신장장애	38.8	53.3	7.9	-	-	100.0(67)
심장장애	41.3	30.5	19.9	5.0	3.3	100.0(122)
전 체	59.4	19.6	9.4	5.3	6.4	100.0(4,1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외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외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장애인 전체의 76.8%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혼자서 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는 50% 이상이 혼자서 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산책' (19.8%), '친구나 이웃방문' (15.8%), '통원치료' (14.1%)의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지역시설 이용' 이나 '쇼핑' 등은 5%내외였고, '여행' 을 외출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0.1% 수준이어서 이 분야에서의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외출의 주된 목적	비율
통근·통학	36.7
통원 치료	14.1
쇼핑	4.5
산책	19.8
친구·이웃방문	15.8
여행	0.1
지역 시설 이용	5.6
기타	3.3
계 (N)	100.0 (3,85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2)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

장애인들이 문화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중복응답을 통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여가시간에는 비디오나 유성방송 등을 포함한 'TV 시청' (92.7%) 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친척을 만나는 일' (50.9%), 장보기 등 '가사잡일' (31.3%), 그리고 '휴식' (23.4%)으로 여가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그 외 연극이나 영화관람 등의 '문화활동' 이나 축구, 수영 등의 '스포츠활동' 등은 5% 이내의 장애인들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역시 TV, 라디오 시청취가 90%로 가장 많았고, 연극·영화관람이 2.3%로 가장 낮아 1995년과 2000년의 조사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비장애인의 여가활용실태³⁾와 비교해 보면, 'TV시청' 을 가장 많이 하고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0년 현재 한국인의 휴일 여가활용실태를 보면, 'TV시청(63%)' 이 가장 많았고, 공연·전시장·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40%인 것으로 나타남.

있는 것은 동일하나 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높았고, 영화관람이나 스포츠활동의 경우는 매우 저조하였다.

표 5. 문화 및 여가활동실태¹⁾

(단위: %)

문화 및 여가활동	비율	문화 및 여가활동	비율
감상, 관람(연극·영화)	2.7	여행(등산, 낚시, 하이킹, 산책 등)	12.2
TV 시청	92.7	사교 일(친구, 친척 만남, 모임 등)	50.9
PC통신, 인터넷, 컴퓨터게임 등	10.7	가족관련 일(외식, 주말농장 등)	12.2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7.6	가사 잡일(장보기 포함)	31.3
창작적 취미(미술, 독서, 연주 등)	14.9	휴식(샤우나 등)	23.4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4.5	기타	2.2

주: 1)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4. 사회활동시 문제점

1) 사회활동의 어려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약간 불편하다'(32.8%), '매우 불편하다'(31.7%), '전혀 불편하지 않다'(26.9%),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8.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5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67.8%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즉, 전체 60% 이상의 장애인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활동시 불편정도는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심장장애인(84.6%)과 뇌병변장애인(85.7%)들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전체 장애인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전체 60% 이상의 장애인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심장장애인(84.6%)과 뇌병변장애인(85.7%)들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전체 장애인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활동시 느끼는 불편정도

(단위: %, 명)

	불편 정도				계(N)
	매우 불편	약간 불편	불편하지 않은 편	전혀 불편하지 않음	
지체장애	28.7	36.1	9.5	25.7	100.0(1,730)
뇌병변장애	59.3	26.4	5.7	8.6	100.0(502)
시각장애	35.2	30.4	7.9	26.5	100.0(493)
청각장애	17.7	31.9	9.8	40.6	100.0(443)
언어장애	15.8	33.4	6.1	44.7	100.0(84)
정신지체	20.8	23.0	13.5	42.7	100.0(264)
발달(자폐)	28.2	26.5	3.9	41.4	100.0(26)
정신장애	16.0	27.6	7.0	49.4	100.0(125)
신장장애	25.2	48.7	3.3	22.9	100.0(67)
심장장애	40.0	44.6	5.5	9.8	100.0(119)
전 체	31.7	32.8	8.6	26.9	100.0(3,85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장애인들의 2/3 이상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복응답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이 불편한 것이 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겠지만, 이 외 '계단,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부족' (59.0%),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52.5%) 등이 불편사항으로 많이 지적되었다(표 7 참조). 이러한 결과를 1995년 조사결과⁴⁾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은 '주위사람들의 시선' (42.6%), '동반자가 없음' (34.6%)을 지적하였다.

2)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1995년과 2000년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시 불편한 주 이유로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장애인들은 주로 일반버스

4) 1995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회활동시 불편한 이유로 '교통수단 이용' (40.6%), '외출시 동반자 없음' (29.4%), '건물등의 편의시설 미비' (15.0%) 등을 지적함.

표 7. 사회활동시 불편한 이유¹⁾

(단위: %, 명)

불편 이유	비율(N)
건물 등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부족	28.2(846)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9.0(1,662)
건물 등 출입구·출입문의 편의시설 부족	23.2(654)
점자블럭, 교통신호 등의 편의시설 부족	15.5(440)
관람·열람석 등의 편의시설 부족	7.0(196)
자판기, 매표소 등의 편의시설 부족	8.9(249)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52.5(1,478)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34.6(975)
주위 사람들의 시선	42.6(1,201)

주: 1) 중복응답 비율임. 편의시설의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 의무시설로 규정된 편의시설들로 세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34.5%), 자가용(24.3%), 일반택시(8.1%), 지하철이나 전철(6.8%) 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⁵⁾,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도 18.8%였다. 이 외 콜택시, 복지관버스, 셔틀형복지버스의 이용은 매우 미미하였다(표 8 참조).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전체 장애인의 50% 정도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사회활동시 불편한 정도가 높았던 뇌병변장애(71.2%)와 심장장애인(58.6%)들이 역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위사람들의 시선(42.6%)때문이었음을 앞의 <표 7>에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5) 1995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통수단으로 일반버스(58.9%), 자가용(17.6%), 택시(13.0%)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계단,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부족 (59.0%)'과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52.5%)'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표 8. 주 교통수단

(단위: %, 명)

교 통 수 단	비 율
일반버스	34.5
일반택시	8.1
지하철/전철	6.8
콜택시	0.5
복지관버스	0.2
자가용	24.3
셔틀형 복지버스	0.2
도보	18.8
기타	6.7
계 (N)	100.0 (3,853)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표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의 정도

(단위: %, 명)

어려움 정도	비 율
매우 어려움	16.4
어려운 편	32.4
어려움 없는 편	20.6
전혀 어려움 없음	30.6
계 (N)	100.0 (3,85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있는가를 장애인들에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3%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46.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장애인의 50% 이상이 자신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95년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5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표 10 참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

표 10.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단위: %, 명)

비장애인의 인식	1995 ¹⁾	2000 ²⁾
매우 부정적	14.8	7.3
부정적인 편	32.4	46.0
보통	30.3	35.4
긍정적인 편	16.8	10.9
매우 긍정적	5.7	0.4
계	100.0	100.0
(N)	(3,230)	(4,078)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2) _____,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생활,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취업(58.6%), 결혼(53.7%), 직장생활(47.5%), 학교생활(46.1%), 취학(44.1%)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사회생활에서는 26.2%의 장애인만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이상의 장애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정도¹⁾

(단위: %, 명)

사회적 차별정도	취 학	학교생활	결 혼	취 업	직장생활	지역사회 생활
매우 많다	30.0	29.3	31.3	37.2	28.3	13.8
많은 편이다	14.1	16.8	22.4	21.4	19.2	12.4
가끔 있는 편이다	10.8	16.9	12.4	10.2	13.2	16.3
거의 없다	45.0	37.0	33.9	31.2	39.3	5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54)	(1,091)	(1,469)	(2,184)	(2,170)	(3,960)

주: 1) 중복응답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장애인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정도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이상의 장애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선방안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시설이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그 제도와 시설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사회적 장애에는 물리적 장애와 비물리적 장애가 있다 하겠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가 너무 많아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물리적 장애와 비물리적 장애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물리적 장애 개선방안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50%가 넘는 장애인들이 거의 매일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외출을 하고 있었고, 쇼핑이나 여행을 하기 위한 외출은 거의 못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에 주로 TV 시청을 하였고, 연극이나 영화관람의 문화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장애인의 68%가 사회활동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건물 등에의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은 교통수단으로 일반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50% 이상이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은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물리적 접근권 확보수단이 되고 있는 편의시설 부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욕구를 기초로 한 편의시설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욕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형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도 장애인의 이용도가 큰 근린대상시설들을 중심으로 공급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물 단위의 편의시설 설치 이외에도 도보나 일반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점과 단위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로 및 교통시설에의 편의시설도 빠른 시일에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물적 시설의 충원 이 외에도 장애인들은 인력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등을 통해 인적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여 대인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TV자막방송, 문자방송 등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비물리적 장애 개선방안

비물리적 장애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활동분야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취업분야에서의 차별정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고,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취업분야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있어 취업을 통한 직업활동은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장애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은 생존권 및 노동권에 속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사회연대와 실천이라는

물적 시설의 충원 이 외에도 장애인들은 인력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등을 통해 인적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여 대인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차원에서 사회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 등의 지원책 이 외에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에 다른 편의시설 설치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생산성 등의 직·간접비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내 장애인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는 그 동안 사회에서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의 근로권이 확보되는 것이며, 동시에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